



22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1회초 무사 1루에 KIA 김주찬이 투런 홈런을 때리고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평창올림픽 열정 감사 김연아 내달 아이스쇼

'영원한 피겨 퀸' 김연아(28)가 4년 만에 은반에서 팬들과 만나는 아이스쇼 'SK텔레콤 올댓스케이팅 2018'의 주제가 2018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국민의 열정적인 응원과 피겨스케이팅 팬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디스이즈 포 유(This Is For You)'로 결정됐다.

이번 아이스쇼를 주최하는 올댓스포츠는 24일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치러낸 열정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피겨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아이스쇼의 주제를 '디스이즈 포 유'로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올댓스케이팅 2018'은 5월 20~22일까지 서울강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

평창올림픽 피겨 아이스댄스 금메달리스트인 테사 버추-스콧 모이어(캐나다)를 필두로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싱글 우승자인 케이트린 오스먼드(이상 캐나다),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스 은메달리스트 가브리엘라 파파디키스-기움 시즈롱(프랑스), 패어 동메달리스트 미켈 뒤아렐-에릭 레드퍼드(캐나다) 등이 출연한다.

또 최근 현역에서 은퇴한 남자 싱글 패트릭 칸(캐나다)과 '베데랑' 스테판 랑비엘(스위스), 제프리 버틀(캐나다) 등도 나선다.

'피겨퀸' 김연아가 2014년 은퇴 이후 4년 만에 특별출연해 아이스쇼 무대에 오르는 가운데 최다빈(고려대), 이준형, 박소연(이상 단국대), 임은수(한강중), 유영(과천중), 김예림(도장중) 등이 나선다.

이번 아이스쇼의 안무는 데이비드 윌슨이 맡는다. 입장권 예매는 옥션티켓(ticket.auction.co.kr)에서 오는 30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KIA 아쉬운 4월...이번주 반등 노린다



프로야구 개막 한 달 KIA 성적표

불안한 4·5선발...뜰쭉날쭉 타선·주전 잇단 부상 속 12승11패

kt·스윙패 안긴 한화와 리턴매치...본격 순위 싸움 속도 내야

"아쉬움이 남은 한 달. 이번 주가 중요하다."

KIA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24일 개막 후 한 달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2018 KBO리그는 지난달 24일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KIA는 24일까지 12승 11패를 기록하면서 3위에 랭크됐다.

5할 승률을 지키면서 상위권에 위치는 했지만 압도적인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KIA를 지휘하고 있는 김 감독도 "아쉬움이 남는다. (NC를 빼고 모두 대결을 했는데) 두산도 강하고 각 팀 전력에 많이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KIA는 앞선 주말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두산과 시즌 첫 대결을 벌였다. 첫 시리즈의 결과는 1승2패. 마지막날 장단 22안타를 몰아치면서 싸움이 3연패는 면했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4·5선발의 모습과 함께 기회를 살리지 못한 타선의 집중력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축 타자들의 잇따른 부진과 부상도 KIA의 폭발력에 영향을 미쳤다.

김 감독은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병기, 김선빈 등이 초반에 안 맞고 했고 부상으로 두 명(이병호, 안치홍)이 나가기도 했다"며 아쉬웠던 한 달을 돌아봤다.

김 감독은 한화와의 주중 3연전에 이어 주말 수원에서 벌이는 kt와의 원정 경기가 전반기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감독은 "이번 주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사기 등이 달라질 것이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모습이 나올 것 같다. 4월 마지막,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KIA는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싸움이 연패를 당하는 등, 4연승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고 '극과 극'의 행보를 이어갔다. kt와의 개막 시리즈에서는 타선이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한화·kt와의 리턴 매치에서 앞선 패배

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4·5선발이 제출한 성적표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KIA는 허태·양현종·맷딘과 함께 이민우와 정용운으로 선발진을 시작했었다. 지난 주말 두산전에서는 한승혁과 임기영이 두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선발진이 재조명됐다.

막강 두산 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경험을 한 한승혁과 부상 복귀전을 치른 임기영이 확실하게 선발 체제를 구축해줘야 하는 한 주다.

그리고 부상으로 빠진 이병호와 안치홍의 공백에서 전계범 백업진의 주전 경쟁도 이번 한 주의 흐름은 물론, 앞으로 전개될 순위 싸움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와 한화의 시즌 4차전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 경기는 추후 재편성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이병호 티배팅 보고 받았다"

호수비 최원준 "2군 안 가려고요"

덕아웃 T 톡톡

▲2군 안 가려고요 = 절박함이 만든 최원준의 호수비였다. 최원준은 지난 22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우익수로 선발 출전, 3-0으로 앞선 2회말 1사 1루에서 김재호의 안타성 타구를 걷어냈다. 그리고 이어 1루에 송구하면서 스타트를 끊은 주자 김재환까지 동시에 잡아내면서 박수를 받았다. 최원준은 이날 호수비의 비결에 대해 "2군 안 가려고요"라며 씩씩하게 웃었다. 지난 시즌 1군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최원준이지만 올 시즌 초반 성적은 타율 0.236에 그치고 있다. 최원준은 타격 부진에 대해서는 "타석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다. 2군 안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전에 보고 받았어요 = 이병호가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김기태 감독은 24일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병호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감독은 "오전에 티배팅 쳤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직은 미세한 통증이 남아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병호는 지난 6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최원태의 공에 맞아 오른쪽 약지 중수골 미세 골절 부상을 당했다. 김 감독은 이병호를 대신해 3루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정성훈에 대해서는 "원래 3루를 했던 선수다. 어깨가 많이 좋아져서 던지는 게 편해진 것 같다. 던지는 데 문제가 없으면 집을 때부터 부담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긴장 안 하는 것? = '막내'의 씩씩한 도전기가 펼쳐지고 있다. 1998년생 유승철은 '호랑이 군단'의 막내 선수다. 나이는 어리지만 묵직한 직구를 씩씩하게 던지면서 엔트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난쟁' 두산도 상대하고 왔다. 유승철은 자신의 장점을 묻는 말에 "주눅이 안 드는 게 장점이야. 마운드에서는 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한다.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서도 "두산이라고 긴장은 안 했는데 조수행에게 3루타를 맞은 것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박인비 "LPGA 투어 20승을 향해"

내일 메디힐 챔피언십 개막 시즌 2승 도전

2년 6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은 '골프 여제' 박인비가 투어 통산 20승에 도전한다.

박인비는 23일(한국시간)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JTBC LA 오픈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 달 밴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시즌 첫 승을 따낸 박인비는 이후 4개 대회에서 준우승 2회, 3위 1회 등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좋은 흐름을 보인다.

박인비는 이번 시즌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순위가 늘 우승권을 뺏기고 있고 상금(70만7089 달러), CME 글로벌 레이싱(1458점), 올해의 선수(75점) 등 주요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 69.13타로 68.85타의 제사가 코르타(미국)에 이어 2위다.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 이후 부상 등이 겹치면서 최근 2년 연속 시즌을 일찍 마무리한 박인비가 올해 다시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도전한다.

올해 LPGA 투어 대회는 총 9개가 열렸는데 아직 2승을 따낸 선수는 없다. 고진영, 박인비, 지은희가 3승을 합작한 가운데 박인비가 시즌 2승과 한국 선수 4승, 개인 통산 20승을 한꺼번에 노린다.

박인비는 이번 시즌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순위가 늘 우승권을 뺏기고 있고 상금(70만7089 달러), CME 글로벌 레이싱(1458점), 올해의 선수(75점) 등 주요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 69.13타로 68.85타의 제사가 코르타(미국)에 이어 2위다.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 이후 부상 등이 겹치면서 최근 2년 연속 시즌을 일찍 마무리한 박인비가 올해 다시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20대 초반 선수들이 즐비한 투어에서 1988년생으로 올해 30대에 접어드는 박인비의 부활은 더욱 극적이다.

2년 6개월 만에 다시 세계 1위를 되찾은 사례도 역대 기록이다. 역대 최고령 세계 1위 부문에서도 박인비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크리스티 커(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마지막 세계 1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렌스탐은 37세, 커는 33세였다.

한편 박인비는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시작되기 전에 세계 1위 선수에게 주는 초록색 캐디캡을 전달받는다. /연합뉴스

안병훈·나상욱 "팀매치 PGA 우승 노린다"

27일 개막 취리히 클래식 출전...최경주는 위창수와 호흡

안병훈이 재미교포 케빈 나와 손을 잡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안병훈은 오는 27일부터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TPC 루이지애나(파 72·7341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출격한다.

이 대회는 2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순위를 가린다. 다른 대회처럼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지만 작년부터 팀 경기로 바꿨다.

1.3라운드는 두 선수가 번갈아 1개의 볼을 치는 포섬 방식이고 2.4라운드는 두 선수가 각자 볼로 경기를 더 좋은 스코어를 팀 성격으로 삼는 포볼 방식이다.

안병훈은 이번 대회에서 케빈 나와 호흡을 꾸렸다. 지난해에 호흡을 맞췄던 27살 동갑 친구 노승열의 입대로 선배 케빈 나와 손을 잡았다.

아직 PGA 투어 우승이 없는 안병훈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주 전 열린 RBC 헤리티지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공동 7위에 올랐다. 지난 2월 혼다 클래식에서는 공동 5위를 차지했고,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는 3라운드까지 공동 6위에 올랐다.

안병훈은 투어 1승의 케빈 나와 합심해 첫 우승을 일꾼다는 각오다.

김시우는 이번 대회 출전하지 않는다.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서 공동 45위에 그친 김시우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준비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디펜딩 챔피언이다.

최경주는 지난해와 같이 위창수와 호흡을 맞춘다. 강성훈은 재미교포 존 허, 김민휘는 역시 재미교포 앤드루 윤과 짝을 이룬다. /연합뉴스



안병훈

나상욱

톱 랭커들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세계랭킹 2위 저스틴 토머스는 대학 동창 친구인 버드 콜리(미국)와 우승에 도전한다. 랭킹 3위 조던 스피스(미국)도 라이언 파머(미국)와 함께 정상 등극을 노린다.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패트릭 리드(미국)는 패트릭 캔틀리(미국)와 함께 출전한다.

/연합뉴스